이웃의 등대 · 민족의 구원선 · 세상의 나침반 $\bullet \quad \blacksquare \quad \bullet \quad \blacksquare \quad \bullet \quad \blacksquare$

English Worship Service

Pastor: Daniel J. Kim, Ph.D.	11:15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	Organist
Praise & Worship ·····	Praise Team
Call to Worship Psalm 96	Pastor
Prayer ·····	Deacon Lee, JinHo
*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Congregation
Scriptural Reading Joshua 7:1-26	Pastor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Falling-out with God"	Pastor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Song ·····	Together
* Offering Prayer ······	Pastor
Welcome Newcomers ·····	Congregation
Member's Blessing ·····	Congregation
* Hymn ······ 449(377)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Congregation

"Falling-out with God"

Joshua 7:1-26

Although Israel's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was indeed divinely orchestrated, it was yet plagued with human sins and fallacies. Through divine intervention, Israel had miraculously crossed the Jordan River and obtained their initial victory over the city of Jericho, but in their attempt to war against the next city of Ai, they experienced a most humiliating defeat. What had gone wrong? Why didn't God back them up? It becomes evident that they had overlooked some key factors necessary to remain under divine favor. First, they were negligent about inquiring upon the Lord for a specific strategy for taking the city. They had relied more on the spies' reports than divine wisdom. Second, they were ignorant about a particular sin in the camp. Achan had personally hoarded some of the "devoted things" (devoted unto the Lord) which were instructed to be completely destroyed.

Until such a sin was exposed, confessed, and repented of, God would not allow Israel the victory against Ai. Likewise, if we find our paths obstructed or efforts nullified in possessing the promises of God, then we need to seriously diagnose our problems by asking these two questions: Am I following the proper guidance of God? Have I repented of any hidden sins before God?

Announcement

-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oom 104.
-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please join our Leadership Training Class (taught by Pastor Daniel) at 9:30 am in Room 104.
- -We need volunteers (especially for soprano and tenor parts) to serve with the Jerusalem Choir.
- -Please pray that the Lord would provide us with two international student ministers (male and female) to serve as our E.M. interns.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부 예 배	오전 9시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본 당
주 일 예 배	Ⅲ 부 예배	오후 2시	Ⅱ,Ⅲ,Ⅳ 층
1 2 41 -11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제그트킨그니 글
ᄉᄋᄱᆒ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ᆸᄗᇻᅔ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 층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И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랑	부 예배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에바다부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등록필수반	오전 10시	coo =
어린이 찬양예배(2	주일)	오후 5시	701 호		직분자필수반	오후 12시40분	- 602 호
어린이 수요예약	H	오후 7시	603 호	새가 족 부	학습보충반	오전 10시	
토요꿈나무영어성품	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 .001.004	607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세례준비반	오후 12시40분	
고등부		오전 9시	101 호	장 년	부(오전)	오전 10시	본 당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장 년	부(오후)	오후 3시30분	702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3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디아스포라 부	L	오후 1시	901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3호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 광 유문건 청년담당목사 오세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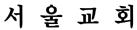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에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최민혁 박다형 허승일 구본혜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천 선교사 강아곱주한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강혜정(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테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 홍성임 (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 만매라(체코), 이재훈 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 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 (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오정녀(케나) 김타 식, 윤왕모, 노산에,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석교), 김종일 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성희(병원석교)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미안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테시)

제23권 제9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____ 대한예수교



2013년 3월 3일

SEOUL PRESBYTERIAN CHURCH 종 원로목사

> Lee Jong-Yun, Ph. D., D.D., D. D. 노

> >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장 로 회

담임목사

Emeritus Pastor

Senior Pastor

(God Gives Us Laughter)

■ 창 21:1-7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우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루, 하루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셨고, 모든 창조를 끝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증거하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으로 마음껏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자가 누리는 그 이름다운 건강과 승리를 마음 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 2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하셨으므로 성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 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 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중에 즐거움이 넘쳐, 그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이겼 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 119:111)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 니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을 삼았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떠나지 않았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 11: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임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연약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웃음과 함께 약 속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창 21:4) 그 이들 이식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레를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할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 날, 그 어떤 의학적인 혜택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 할례를 받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싯돌로 살을 찢고 잘라내는 것으로서, 그것이 약 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100세에 자신의 외아들 이식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들입니다. 주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해 주고 싶고, 더 편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삭에게 부짓돌을 들이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햇했습니다. 할례를 햇합으로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삭의 할레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힐 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생명 같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투 모 된 여러분들의 신앙의 헌신 없이 자녀들의 신앙의 헌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면령하신 대로 수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연약에 신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연약을 신설하게 지킴으로 말미 암아 새까만 재로 변해 가는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다시 당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웃음을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창 21: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그냥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르되" 린 히브리어는 "밀렐" 인데, 이것은 "찬양"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의 기워이 되었다 고 말합니다. 사라가 찬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웃음은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웃었던 옷 음하고는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 현실이 되었음으로 감격에 찬 기쁨의 웃음인 니다. C. S. Lewis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켜 준다." (창 21: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가야 힘 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 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인한 웃음소리가. 대치동 강남을 넘어, 서울 경기도 온 한반도에 울려 퍼지기를 소워합니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복음의 척박한 땅에도 울려 퍼져,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웃음을 웃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웃음을 잃은 자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신용식 장로
${ m I\hspace{1em}I}$	오전 11시 20분	오세광 목사	오광환 장로
${\rm I\hspace{1em}I}$	오후 2시	황 광목사	하인선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33:20-2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찬 송 Hymn ····· 5(3)·····	다	함	께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01(나라사랑 3)…	다	함	께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0]					
찬 송 Hymn ······580(37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	다	함	께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박노	철 !	갂					
(God's Answer to the Little Moan)								
차 소니vmn 새 222	rl.	하	加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	철 도	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9:11	인	도	자
찬 송 … 88(88) / 354(394) …	다	함	께
기 도	김자	근집	사
찬 송샘 109 / 샘 59	다	함	께
성 경 고전 3:9-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부흥의 원칙" ·······	설	괴	자
* 찬 송 210(245)	다	함	께
* 축 도	설	괴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Ⅱ 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성 경 ······· 마 찬 양 ·····	배옥선 권사 II부: 홍건표 권사 10:2-4 ······· 인 도 자 ····· 찬 양 대 I음의 제자 바돌로매'·· 설 교 자

새벽기도회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요기도회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 입니다.

오후 8시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9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가브리엘		조현정	
Ⅱ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여정	양경실	윤중현1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김정희16	박수강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지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창 21:6)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5 FA 67	X=4±4(6 4	1.0)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 1. **여전도회 헌신예배 찬양연습(임역원) /** 3일(주) 오후3시30분 502호
- 2. 이미용 봉사(봉천동 노인복지관, 정신건강 센터) / 5일(화) 오전9시 101호
- 3. 13교구 연합다락방 / 8일(금) 오전11시 501호
- 4. **15교구 연합다락방 /** 8일(금) 오전11시 602호
- 5. **제2기 꿈나무영어성품스쿨 개강예배 /** 9일(토) 오전10시 701호
- 6. 전 도 / **3일(주) 주일전도**: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치삼성, 도곡렉슬, 롯데케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5)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6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미리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30부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스테반회(한티공원)

7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력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8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9일(토) 오후 2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비울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이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시 부은 현관에서 안내위워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시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Sarah Kim)

4.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 2020운동, 한가정한선교사 후원 접수 /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 2020 운동, 한가정 한 선교사 후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돕고 군 복무지를 전도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시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시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6.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양택	14교구	이삭	인내팀	김다은	12교구	청년2부	본인	김형석	13교구	청년1부	본인
홍경화	1교구	마리아	이영희	성주현	16교구	청년1부	본인	김성민	16교구	청년1부	인내팀
현미순	16교구	루디아	이은희	김진주	11교구	청년1부	본인	이슬기	13교구	청년1부	본인
김기훈	16교구	루디아	인내팀	정성우	5교구	청년1부	본인	조상혁	16교구	청년1부	본인
오진아	11교구	루디아	최향봉	신지혜	13교구	청년1부	본인	임하은	16교구	청년1부	화평팀
김이세	13교구	청년1부	본인	이아령	16교구	청년1부	한재희	박준형		초등부	인내팀
김대형	1–20	청년2부	강요혜	김소영	11교구	청년1부	김소영	장성우	교육	초등부	최향봉
엄창호	7–4	청년2부	김은정	오상협	13교구	청년1부	본인	장세일	1국	초등부	이은희
권중혁	11교구	청년2부	화평팀	정소리	16교구	청년1부	본인	노우진		유치부	본인
김영훈	16교구	청년2부	본인	천지우	16교구	청년1부	본인	강현준		유치부	본인
김봉현	12교구	청년2부	본인	추교빈	15교구	청년1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	나님의 영광	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7.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3688-9123

● 장 례

- 1. 故 서정희 성도(12교구 최순례 성도 모친, 박종식 집사 장모) / 2월25일(월) 별세, 2월27일(수) 발인
- 2. 故 이기배 성도(3교구 이정수 집사 부친, 최경분 집사 시부) / 2월26일(화) 별세, 2월28일(목) 발인

♥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회의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오 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 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 는 가진 자들, 늘어만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니 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 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종유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